

2015. 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5.8.21.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12	-	-	13	-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8	5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7월
교양	리포터들의 단어 사용 비속어 없게	교육을 통해 비속어 사용 안하도록 함	7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 폭 넓게 섭외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 전국 인사 출연	7월
보도	엑스포 재창조사업 꾸준한 관심을	엑스포 재창조사업 지속적 보도	7월
교양	방송에서 보다 올바른 언어 사용	진행자, 리포터에게 바른 언어 사용 교육, 프로그램에 올바른 어법 사용	7월
교양	로드다큐 기획의도에 맞게 영상 구성	로드다큐 시청자 눈높이 맞추어 제작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지역주민 관심사 밀착취재	시사프로그램에서 지역밀착형 소재 꾸준하게 다룸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공공기관 행정력 감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행정력 감시	7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과 대화 편안하게 유도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 사전 미팅을 통해 토크 내용 편안하게 구성	7월
보도	대전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보도	대전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꾸준히 보도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전문가 인터뷰 적절하게	시사프로그램 전문가 인터뷰 적절하게 활용	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8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대전MBC의 두개 프로그램이 올해 제4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은 지역 방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었다. 지역다큐멘터리 TV 부문 작품상으로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이, 지역오락 라디오 부문 작품상으로 <즐거운 오후 2시>가 각각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우리는 지난해 TV 부문에서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일기장>과 시사플러스 <어느 AS기사의 죽음>이 한국방송대상 2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p> <p>대전MBC 구성원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일로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지난해는 창사 50주년의 특집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훌륭히 치러낸 가운데 이어진 올해의 한국방송대상 2개 부문 수상소식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p> <p>2년 연속 2관왕의 영예를 안은 것이라고 <M- 스토리>는 전하고 있는데, 대전MBC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꽤 오래 전 라디오와 TV 부문에서 한국방송대상 2관왕을 수상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역오락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즐거운 오후 2시> 정규 프로그램이다. 갈수록 어려운 방송환경에 내몰리면서 한때 대전 충남 지역을 휩쓸었던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 한낱 프로그램의 터줏대감인 <즐거운 오후 2시>의 수상소식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p> <p>지난해 대전MBC 50년의 역사는 라디오의 역사라고 쓴 적이 있다. 이번을 계기로 라디오를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p> <p>'back to back homerun' 두 타자 연속 홈런을 기록 했지만 'back to back to back homerun' 세 타자 연속 홈런을 한국방송대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늘부 욕심일까?(김학선)</p>	<p>말씀하신바와 같이 라디오와 TV 두 부문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어느 한 쪽의 치우침 없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p>	○		
교양	<p><허참의 토크앤 조이>에서 개그맨이자 공연기획자인 전유성씨의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달리 초반 15분간 출연자의 단독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p>	<p><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출연진의 위상에 따라 프로그램 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의 숨은 명사 발굴과 함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인사까지 다양한 출연자 섭외를 위</p>	○		

	<p>시청자들이 출연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운 변화였다. 이후 진행자들과 대화와 간결한 진행을 통해, 전유성의 데뷔 일화, 공연문화의 연출을 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진행자와 게스트와의 친분으로 인해 본 편에서는 방송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됨을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전유성이 운영하는 청도 철가방극장을 직접 찾아가 주인공의 일상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 인터뷰 등을 통해 틈틈이 보여주어서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다. 다만, 출연자와 유명 연예인과의 일화를 주제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출연자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p> <p>그간 허참의 토크&조이는 대전·충청지역의 인사를 초대하여 토크를 진행하였는데, 최근 점차 전국적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로그램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민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역 방송이라는 특수성을 방송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오덕성).</p>	<p>해 애쓰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출연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성북동에 골프장이?” 타이틀로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 성북동에 대충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취재하였다.</p> <p>방송 내용을 보니 성북동 지역은 서대전권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산림욕장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시사플러스에서 심층 취재하여 다룬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p> <p>도시공사에서 도시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접근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공기업을 무리한 사업 추진결과 후속적으로 지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 실제 경우로 강원 태백지역의 리조트 개발 사례를 취재하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은 장기적 계획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지적과 내용에 충실한 영상이 돋보였다(김명수).</p>	<p>시사플러스는 양측의 균형 잡힌 보도와 합당한 결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북동 골프장 문제의 경우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다.</p> <p>앞으로도 보다 수준 높은 해결책 제시를 위해 고민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최근 연구단지내 (구)대덕과학문화센터의 매각 추진에 따라 고층오피스텔 건립계획</p>	<p>목원대 측이 해당 건물 및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고층 오피</p>	○		

	<p>이 검토되는 바, 연구단지내에서 ‘재창조 추진위’ 발족 등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다루어 주기를 제안한다(김명수).</p>	<p>피스텔 건립의 찬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도 여부를 검토하겠다.</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8월 17일) 집밥을 찾아서 코너에서 박이 익어가는 청양알프스 마을을 소개하였다. 청정한 산촌에서 제초제를 안쓰고 냉쿨박을 재배, 수확하여 요리한 맛을 소개한 프로그램이었다. 박칼국수, 박해물파전, 박탕수육, 박잎전 등 박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였다. 청정지역의 담백한 박요리를 소개하여 시청자에게 신선한 선물을 선사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리포터 박찬규씨의 대화에서 울림현상이 있어 시청하기에 불편하였다 촬영 전 오디오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기를 바란다(한찬희).</p>	<p>제작 현장에 투입되기 전 오디오 장비를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본 방송이 시청자들의 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p>	○		
<p>교양</p>	<p>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TV와 함께 한다. 즉 아침 방송은 시청자들과 아침을 함께 여는 방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상파 3사의 아침 방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뉴스-토크쇼-드라마란 틀 안에서 서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p> <p>그럼 대전MBC에서 방영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동 시간대 다른 지상파 아침방송과 비교하여 무엇이 강점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p> <p>우선 평일 8시~10시간대 지상파 3사의 아침 방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전MBC의 ‘생방송-아침이 좋다’, KBS 대전의 ‘아침마당’, TJB 대전의 ‘좋은 아침’이 있다.</p> <p>아침 시간대의 특성상 주 시청층이 주부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들을 타킷으로 하는 내용과 소재들로서 아침 시간대를 고려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종류 면에서도 다양하지 않고 서로 엇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p> <p>따라서 채널간 아침 방송의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도 동질화, 획일화인 상태에서 대전MBC에서도 대전MBC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수없이 찾고 노력도 해 보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차별화된 아침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p> <p>물론 시청자 위원인 본인 또한 그러하다. 그동안 시청자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연 내가 대전MBC와 시청자들을 위해 시청자 위원으로서 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 해 볼 때 별로 없다. 기껏해야 옥에 티를 찾</p>	<p>매일 아침 지역의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지역의 생활정보, 화제, 문화 등을 다양하게 다루는 매거진 프로그램이다.</p> <p>프로그램의 구성상 타 지역의 소식도 함께 엮여있어, 순도 높은 지역소식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지 못해, 제작진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p> <p>새로운 코너의 신설이나 증편에는 제작인력의 증원뿐 아니라 제작비 증가의 요인은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p> <p>현재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요일별로 “초대석, 문화나들이, 집밥을 찾아서, 현장 속으로, 주간 뉴스 브리핑, 리나의 충청여지도, 문화나들이”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p> <p>보다 다양하고, 지역 시청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로 채우도록 더욱 노력하겠다.</p>	○		

	<p>는 것이라고나 할까. 또한 방송인도 힘들게 사실인데 일반인인 나로서는 더욱 한계를 느낀다.</p> <p>그래서 아침 방영 프로그램간 특별한 강점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 시간대 다른 지상파 아침방송과 비교하여 대전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부족한 부분이나 변화를 모색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나름 생각해 보았다.</p> <p>1. 우선 다른 2개(아침마당, 좋은 아침) 프로그램과의 큰 차이는 요일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전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애청자는 그날 방영 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시청을 통해 사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도 예측할 수가 없다. (반면 다른 2개의 아침방송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특화되어 있다)</p> <p>규칙성과 예측성이 시청자로 하여금 시청습관을 형성하게 만든다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p> <p>2. 그리고 시청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주제를 정해 문자 사연을 받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참여자 확대를 위해 문자메시지 참여자 중 몇 명을 선정해 대전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란에 게시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p> <p>3. 또한 아침 방송은 대체로 이른 아침 시간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뉴스정보, 출근 및 등교 준비를 마무리한 주부들이 휴식을 취하는 오전에는 주부들이 쉬면서 부담없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있는 만큼, ‘생방송 아침이 좋다’ [오늘의 게시판] 소개 이전에 주 시청자라 할 수 있는 주부들을 위한 생활의 지혜나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란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p> <p>4. 끝으로 대전MBC 각 방영 프로그램 개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시사플러스는 시청자 의견, 시청자 제보란으로 되어 있고,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시청자 제보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시청자 의견란으로 되어 있는데 생방송-아침이 좋다는 시청자 제보보다 시청자 의견 또는 시청자 참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장백기).</p>				
교양	“아침이 좋다”는 충청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주	아침이 좋다 코너 구성을 고민해 보겠다. 축제를 연이어 앞뒤로 편성하는 것		○	

	<p>고 있고 리포터들도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주고 있다.</p> <p>문자메시지 내용을 방송 첫머리에서 전달하고 방송 종료 10여 분 전에 진행자가 읽어주고 있는데, 그 시간이 길고 태블릿을 보면서 읽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프로그램을 듣게 되는 것이라 지루하다. 적절한 영상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p> <p>8월 19일편을 보면 앞부분에서 견우직녀 축제를 소개하고 곧 이어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가 소개되었다. 축제가 중복되어 구성의 묘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 연이어 축제를 배치하느니 다른 코너를 배치하고 뒷부분에 다른 지역 축제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p> <p>맨 앞에 지역의 날씨를 설명해 주고 다시 끝날 무렵 날씨를 다시 연결해 주고 있는데 뉴스도 아니고 아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2차례에 걸쳐 날씨를 전달하는 것은 지루함을 더하는 것으로 느껴진다(성정모).</p>	<p>과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앞뒤로 편성을 하였다. 앞으로 구성시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의 흐름을 고려해 보겠다.</p> <p><아침이 좋다> 주시청대상층은 주부라고 본다. 날씨를 프로그램에 두 번 연결한 것은 기상정보를 주부들에게 더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구성하였다.</p>		
교양	<p>8월 15일 방송된 건강플러스를 시청하였다. 건강 먹을거리로 ‘옥수수 시금치 스프 만들기’를 TV주치의 편에서는 여름철 눈 건강관리를 소개하였다. 눈 관리에 대해 치료방법, 예방법 등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는데 의학용어가 다소 어려워 시청하는데 부담이 되었다. 마지막 3분 체조 코너에서 목과 어깨에 좋은 동작을 보여주었다. 요가 강사가 시범을 보였는데 시청자 입장으로 단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다. 시청자들이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로 구성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박희원).</p>	<p>3분 건강체조는 건강플러스에서 새롭게 도입한 시청자를 위한 코너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체조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 ‘주연 없는 대전문화산업’(8/7)을 시청하였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제작지원 약속불이행으로 영화제작사들의 항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대전시와 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실태, HD 드라마타운 완공 후 운영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전시는 산업영화 유치만 치중 했을 뿐 영상산업 인력과 업체를 양성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HD드라마타운 역시 지역과 별개로 움직이는 실태를 엿보는 실정이다. 향후 완공돼서 운용할 때 대전시는 어떤 전략을 짜야하는지, 지역영상산업 발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서 깊 있게 더 다루어지길 바란다(박희원).</p>	<p>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의 경우 자금의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산업의 경우, 더욱 심한 규제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 나갈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갖겠다.</p> <p>대전문화산업의 경우,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에서 공익을 위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다. 앞으로 보다 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8/6)에 “희망을 짓다, 사랑의 집 고치기”를 시청하였다. 대전 MBC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 고치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건설협회와 함께 한 이 사업이 25호 점이 되었다.</p> <p>영상에서 만난 사랑의 집 고치기는 다소 딱딱하였다. 인터뷰도 지루하게 담아 답답하였다.</p> <p>좋은 내용의 이런 ‘사랑의 집 고치기’는 영상 또한 감동을 줄 수 있게 구성을 했으면 한다(유덕순).</p>	<p>‘사랑의 집 고치기’는 대전MBC 사회공헌사업이기도 하다. 어려운 우리 이웃을 선정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기에 영상에 담을 때 보다 각별의 노력으로 제작에 임하겠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시청자들로부터 그 날의 주제에 맞는 문자를 받아 읽어주는 코너가 있다. 진행자가 단순히 태블릿을 보고 읽는 것은 지루하다. 그 날의 주제에 맞는 영상을 별도 제작하면 어떨까? 문자메시지를 소개할 때 MC의 얼굴을 화면에 잡는 것 보다는 영상을 보여주면 지루함이 덜 들것 같다(김형주).</p>	<p>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전달 방법을 고민하겠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띠 편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일별 특화된 코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p> <p>특히 지역의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섹션이 필요하다. BBC와 후지TV도 이런 코너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p> <p>날씨 연결을 프로그램에서 두 번 처리하는데 첫 번째 연결과 두 번째 연결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 문자메시지 전달하는 코너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오덕성).</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구성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제작진의 회의를 거쳐 수정하고 있다. 지역의 소식을 집중 정리하는 <주간 뉴스 브리핑>을 금요일에 신설하였고, 주1회 운영하던 초대석을 수요일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요일과 관계없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 방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p> <p>부족하지만,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챙기며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제작에 임하고 있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스포츠 관련 코너를 만들면 좋겠다. 한 주간 프로야구, 프로 축구 등 경기결과와 전망 등을 소개해 주면 스포츠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반길 것이다(김학선)</p>	<p>프로그램 코너 구성에 참고하겠다.</p>	○		